

# 격랑의 역사에 대한 연극적 대응

-황봉룡론

김재석\*

〈차례〉

1. 서론
2. 새로운 국가창조기와 낙관적 인물
3. 대약진운동기와 '혁명적 이상'의 인물
4. 문화대혁명기와 '영웅적 투쟁'의 인물
5. 새로운 역사시기와 '퇴봉정신'의 인물
6. 결론

## 1. 서론

중국 연변 조선족 연극을 대표하는 인물로 반드시 꼽히는 작가가 황봉룡이다.<sup>1)</sup> 연변지역 연극 발전에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겠지만, 그보다는 그의 작품이 시대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라는 사실에 더 비중을 두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황봉룡 이상으로 연변 지역 연극사를 한 몸체에 체현하고 있는 작가를 다시 만나기 어려울

---

\* 경북대학교 교수

- 1) 연변 조선족 희곡의 개괄적인 흐름과 극작 기법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김재석의 「연변 조선족 극문학의 극적 특성과 공연기법 연구」(『어문학』 제64집, 한국어문학회, 1998)를 참조.

지도 모른다. 1925년 길림성 연길현에서 태어나 오늘까지 연변지역을 떠나지 않고서 연극에 매진해왔기에, 중국내 소수민족으로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갖가지 사연들이 그의 작품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말을 바꾸어보자면, 황봉룡의 작품에는 중국 현대사의 굴곡이 그대로 새겨져 있다는 것이 되겠으며, “시대적 특성과 민족적 특성을 진하게 하려고 노력”<sup>2)</sup>하였던 그의 작가정신에서 비롯되었다.

1949년 중국에 모택동 정권이 들어서면서 연변 지역에 흩어져 살던 동포들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편입되어야 했다. 그 이후 연변지역 연극인들은 조선족의 문화 대 한족의 문화, 개인의 노선 대 당의 노선이라는 이항대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큰 비중을 둔 창작 노선을 택해야 했으며, 그것이 연변조선족 극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지배하는 근간이 된다.<sup>3)</sup> 그러므로 황봉룡의 작품을 읽는 것은 바로 그러한 흐름의 속내를 제대로 짚어 볼 기회를 얻는 것이기도 하다.

연변지역 조선족 희곡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중국이 개방정책을 펼 이후 연변지역 희곡이 국내에 소개되긴 하였으나, 개괄적인 특성을 밝히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sup>4)</sup> 최정연<sup>5)</sup>을 제외하고는 연변지역 희곡작품집이 국내에서 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접하기 어려운 것이 주된 이유이겠고, 계몽·선전극 위주의 수준 낮

2) 황봉룡, 《황봉룡 희곡집》, 연길: 민족출판사, 1984, 2면.

3) 예를 들어, 황봉룡과 더불어 연변지역 연극계를 대표하는 최정연은 <귀환병>이란 작품 때문에 반당반사회주의 우파로 몰려 1957년부터 1979년까지 창작활동을 금지 당했다. 연변지역 조선족 극작가들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사실을 눈여겨 보지 않을 경우 황봉룡의 작품 세계를 표피적으로 이해하고 말 우려가 있다.

4) 그동안 이루어진 주요 성과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김홍우, 「중국 연변 조선족의 문학」, 『희곡문학』 창간호, 1990.

서연호, 「연변지역 희곡연구의 예비적 검토」, 『한국학 연구』 제3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1.

5) 김홍우 편, 『최정연 희곡집-옥녀동』, 원방각, 1990.

은 작품들로 예단해버린 연구자들의 편견도 큰 몫을 차지하겠다. 이번 글에서는 황봉룡의 희곡에 등장하는 인물형의 특징과 형상화 전략을 통시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자면, 시대 상황의 변화와 등장인물이 지향하는 세계의 변화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 볼 것이며, 더불어 등장 인물의 형상화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사실주의 창작방법이 극작계의 기본”<sup>6)</sup>일 수밖에 없어서 외양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 연변 조선족 희곡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방식이 되리라 믿는다.

중국의 희곡사에서는 ‘당대의 연극’으로 큰 범주를 잡고, ‘건국 후 17년의 연극’, ‘문화대혁명시기의 연극’, ‘새로운 역사시기의 연극’으로 나누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 글에서는 ‘건국 후 17년의 연극’을 1958년을 기점으로 나누어보기로 한다. 1958년 중국에서 일어난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정치·사회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불러왔는데, 황봉룡의 작품세계에서도 차별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은 80여편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연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연변지역에서 간행된 그의 작품집(《장백의 아들》, 《황봉룡 희곡집》)<sup>7)</sup>에 선별되어 실린 희곡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작품들을 네 시기로 나누어 통시적 흐름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새로운 국가 창조기’(1953-1957)의 작품으로는 <새각시>, <네 번째 해방>, <물남에서 온 령감>, <김원장 일가>, ‘대약진운동기’(1958-1966)

6) 김해룡, 「중국조선민족극예술 개관」, 『중국조선민족예술론』, 료녕민족출판사, 1991, 172면.

7) 《장백의 아들》, 연길 : 연변인민출판사, 1978; 《황봉룡 희곡집》, 연길 : 민족출판사, 1984.

《장백의 아들》에는 세 편의 장막극과 두 편의 장막극, 《황봉룡 희곡집》에는 네 편의 장막극과 여덟 편의 단막극이 실려 있다. 그중에서 중복 게재된 작품 두 편과 아동극 두 편을 제외하고 도합 열 세 편의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에는 <장백의 아들>, <새벽길>, <예조리 영감>, <광활한 천지에서>, ‘문화대혁명기’(1966-1978)<sup>8)</sup>에는 <차길>, <청산은 여전히 푸르다>, ‘새로운 역사시기’(1979년 이후)에는 <괴상한 락력표>, <산귀신>, <배우와 강도>를 다루기로 한다.

## 2. 새로운 국가창조기와 낙관적 인물

1949년에 수립된 중국 정부는 국가와 농촌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기간요원들이 행정 조직을 장악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들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1951년부터 시작된 삼반운동(三反運動)이 반부패, 반낭비, 반관료주의를 내세우며 당의 관료들을 압박했으며, 동시에 진행된 오반운동(五反運動)은 여전히 지위를 유지하고 있던 자본가계급을 공격하였다.<sup>9)</sup> 농촌을 장악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호조조(互助組)로 편성했으며, 그 이후 초급 농업합작사, 고급 농업합작사로 이어지면서 모든 농민들을 합작사나 생산대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나갔다.<sup>10)</sup> 급속한 변화는 당연하게도 저항 세력을 만들어내기 마련이었으며 새로운 국가 건설에 큰 장애요소가 되었다. 건국 직후의 중국정부로서는 저항 세력을 효율적으로 잠재우기 위해서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변화의 당위성

8) 1976년 9월 모택동이 사망하고, 10월에 강청을 위시한 4인방이 구금되면서 문화대혁명은 공식적으로 끝이 난다. 그러나 1978년 등소평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문화대혁명의 후유증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문화대혁명기에 포함시켜 다루고자 한다.

9) 페어뱅크, 존 킹(중국사 연구회 역), 『신중국사』, 도서출판 까치, 1994, 449면 참조.

10) 페어뱅크, 존 킹, 위의 책, 452-453면 참조.

을 인식시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황봉룡의 초기 작품인 <새각시>(1953), <네 번째 해방>(1954), <물남에서 온 령감>(1955), <김원장일가>(1957)에는 새로운 조국 건설에 매진하는 '낙관적 인물'이 등장하고 있으며, 그들의 정당성은 '토론의 장면화'<sup>11)</sup>를 통해 강조된다. 낙관적 인물은 과거의 중국보다 더 나은 새로운 중국의 가능성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인물이며, 이들은 개인주의에 빠져 있는 일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선진인물'이다. 그들은 한결 같이 성실하며, 사사로운 이익에 매달리지 않으며, 남의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무결점의 인물'로 그려져 있다. 국가 체제의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선전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한 성향을 대변하고 있는 작품이 <새각시>이다. 시아버지의 회갑잔치라는 적절한 극적 상황 설정과 재치 있는 대사 구사, 극적 반전의 묘미<sup>12)</sup> 등에서 황봉룡의 극작 세계를 대표할만한 작품이라 하겠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자 하는 며느리와 구시대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시아버지의 갈등은 당대 중국이 처하고 있는 정치·사회적 상황을 가정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고 있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시아버지의 힘이 며느리보다 더 강력하므로 당대 중국의 현실을 대변하는데 무리가 없다. 며느리가 당대 중국의 새로운 혁명 세력이라면, 시아버지는 그때까지 막강한 힘을 지속하고 있던 구정권하의 기득권층을 대변한다 하겠다.

11) '토론의 장면화'는 등장인물들 사이에 특정한 문제를 놓고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 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등장인물 사이의 말다툼도 여기에 속한다. 일제강점기하의 사회극에서도 작가의 주장을 직접 전파하는 유용한 극적기법으로 자주 사용되었다(김재석, 『일제강점기하 사회극 연구』, 태학사, 1995, 79면 참조).

12) 강인국이 "락후한 아버지를 설복해서 전변시키는 인물"을 맡았다면서 박영감을 상대로 연극을 보여주는데, 이때 박영감이 현실과 연극을 구분하지 못해 화를 내어 소란을 일으킨다(113면).

시아버지 박영감이 주장하는 바 “어느 집에 늙은이 있으면 법이 있는 게고 법이 있으면 따라야지.”<sup>13)</sup>는 새로운 생산체제와 분배체제를 구축해나가는 상황에 저항하는 담론을 대변하는 것이다. 거기에 비해 선순은 ‘가정의 대사’보다는 ‘국가의 대사’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며느리를 맞이한 다음 환갑 잔치를 치르기 위하여 2년을 준비했기 때문에 분수에 넘치더라도 화려하게 잔치를 하고자 하는 시아버지의 마음을 “낡은 풍속습관과 생활방법”(96면)은 뜯어고쳐야 한다는 일념으로 재지하는 것이다. 결국 남 모르게 부업까지 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며느리의 참된 마음에 감복한 시아버지가 자기 고집을 꺾음으로써 선순의 입장이 올바르다는 사실이 더욱 강조된다.

<네 번째 해방>(1954)의 지순녀는 선순이 더욱 단선화 되어 나타난 인물이다. 그만큼 더 강력한 낙관으로 뭉쳐진 인물이며, 그녀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대는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자신의 삶을 희망의 밝음 속으로 이끌어내어 준 해방으로 정리가 된다.

**지순녀** : 저 나는 16살 때 박씨네 집으로 시집왔는데 그때 박씨네 집 시렁에는 금이 난 질그릇 몇개가 있었구 이빠진 쌀함박과 숟가락 몇개밖에 없었습꼬마. 아니, 없었습니다. 노전도 없어서 거저기를 깔았는데 동삼에는 벽에 서리가 하얗게 끼구 몹시 내굴어서 정말 형편없었...습니다.<sup>14)</sup>

가난으로 점철된 삶을 꾸려왔기에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는 더욱 크다. 새 시대는 그녀에게, 남녀 차별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하였고, 호조조 덕분에 가난을 벗어나게 하였으며, 유치원과 탁아소가 활성화

13) 《황봉룡 희곡집》, 107면. 이하 작품인용에서는 해당 작품이 처음 나올 때에만 각주에 출처를 밝히기로 하고, 그 이후는 면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14) <네 번째 해방>, 《황봉룡 희곡집》, 480면.

화되면서 집안 일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농민학교에서 글을 배워 문맹을 벗어나게 해주었던 것이다. 변화된 삶을 네 가지 해방으로 정리한 지순녀는 '고졸졸업장'까지 타려는 열성을 보이는데, 남편까지 감복<sup>15)</sup>시켜 도움을 얻어냄으로써 그녀가 선택한 삶이 바람직한 것임을 알게 한다.

과거의 삶에 비추어 현재의 삶을 긍정하는 방식은 <물남에서 온 영감>(1955)에서도 반복된다. 새시대에 대한 희망을 지닌 마중필의 성품은 개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있는 최조감과 대조되어 더욱 강한 강조의 효과를 얻는다. 새로운 생산과 분배 방식인 3정에 대해 의심하고 반발하는 최조감은 당대 농촌에서 흔히 발견되는 인간형이었을 것이다.

**최조감**: 재작년 통구통소 때 날보구 징구량을 안한다구 뒤에선 개요 돼 지요 해두 6~7월에 쌀을 먹구 김을 매니 그때는 모두 날 부러워했지. (중략) 내가 고리대를 났나 투기모리를 했나 여량두 팔만치는 다 팔았단 말이요. 내 쌀을 내 집에 두구 내가 먹구 쓰는데 무슨 시비가 있단말이요? (중략) 산량을 정하구 구매량을 정하구 소비량을 정한다는 이게 3정이지 별개 3정인줄 아오? 이리다간 보지, 올해 3정이 나오구 명년에 4정이 나오구 후년에 5정, 삼삼은 구 해서 9정이 나올게요. 그러니 죽을 먹구 졸뱅이떡, 썩떡 퇴판 일거요.<sup>16)</sup>

국가의 시책인 3정에 대한 최조감의 공격은 당시 중국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상당한 현실감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15) 조경팔: 물을 건느라 호통만 치고 다리를 놔주지 않았는데 앞으로 서로 배우고 배워주면서 다같이 생산두 잘하구 학습두 잘하여 우리 부부가 기술학습과 문화지식학습에서 모범이 되기로.

16) <물남에서 온 영감>, 《황봉룡 희곡집》, 467면.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득을 본다라는 개인적 경험을 단번에 깨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한 불만은 현 시대를 긍정하는 김초시를 만나게 되면서 허물어진다. 김초시는 중국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의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있으면서, '통구통소' 때문에 식구들이 굶어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김초시의 생각에 최초감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면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김원장 일가>(1957)에 등장하는 김원장은 직공병원 원장인데, 집안의 어려움보다는 국가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을 통해 극복하려는 인물이다. 김원장의 집안에서 개인주의 경향을 드러내는 인물은 김원장의 처인 최씨와 셋째 동생인 동호이다. 최씨는 시부모를 모시고 도련님에다 동서, 자식까지 포함한 대 식구들을 돌보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고 있지만, 아래 동서이며 가수 활동을 하는 경희의 병든 모친을 모시는 것은 거부하고 나선다. 셋째 동생인 동호는 벽촌에서 교원으로 있는 약혼녀 정순에게 사표를 내고 집에서 살림 살면서 자기를 도와줄 것을 바라고 있다.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시기에 집단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가라는 물음이 던져지는 것이다.

김원장이 피곤을 모르고 일하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과거의 생활과 지금의 생활을 비교해서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원 장 :**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옛일을 생각해보십시오. 아버지는 왜 늙때 이 병원에서 마차를 몰았으며 지금도 쉬시지 않고 마차를 몰고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이 병원에서 물을 끓이고 방을 닦았지요. 그때 아버지는 자식이 원장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겁니다. 저는 밤 한시두시까지 자지 않고 책을 봤습니다. 그때 저는 시간이 그립고 선생이 그립고 돈이 그립고 책이 그립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저를 도와줬습니까? ... 그런데 오늘은

진호가 외국으로 류학갔습니다. 누가 보내줬습니까?... 17)

개인적으로 고생해서야 가능했던 일을 이제는 국가에서 해주는 시대가 되었으며, 그렇다면 개인은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이다. 특히 동호가 개인적인 욕심을 내세워 과거의 일을 망각하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가지며, “작은 도리는 큰 도리에 복종해야 한다”(406면)는 주장을 펴는데 새로운 국가건설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도덕율이라 하겠다. 동호가 자신의 ‘주관주의’를 반성하면서 ‘대남자주의’를 타도’하게 되고, 최씨도 남편의 격려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극복함으로써 김원장의 태도가 강하게 긍정된다.

황봉룡의 초기 작품에 등장하는 낙관적 인물들은 자신의 생각이 올바르다고 느끼지만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하기를 기다릴 줄 안다. 이들이야말로 황봉룡이 제시하는 새로운 시대의 인간상인 것이다. 그렇지만 낙관적 인물의 고귀한 품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것인지 말해지지 않기 때문에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다름이 개인이 지닌 성질의 차이로 느껴지는 측면이 많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어야 하겠다. 즉 주동인물은 개인의 성격 자체가 신실한 반면, 반동인물은 그의 개인적 성격이 교약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동인물들이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사회적 의미가 약한 일들로 되어 있어서 더 더욱 그렇다.

### 3. 대약진운동기와 ‘혁명적 리상’의 인물

1950년대 후반에 들면서 중국은 또 다른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 생산

17) <김원장 일가>, 《황봉룡 희곡집》, 408-409면.

과 분배의 기본적 질서를 재구축 하였다고 판단한 중국 정부는 이른바 대약진운동을 전개한다. 1958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사회주의건설 총로선'은 그러한 흐름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였으며, 그 이후 중국 전역에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그러나 “경제사업에서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무시하고 인간의 주관적 의지와 주관적 힘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sup>18)</sup>한 나머지 엄청난 모순을 발생하게 되었고, 그러한 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우파 투쟁이 벌어짐으로써 중국 전역에서, 혹은 연변 지역에서 극좌적 성향이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 연변지역의 작가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우파분자로 몰려 추방당하는 분위기였으므로, 황봉룡의 작품에 나타나는 경직성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대약진운동기의 황봉룡 작품에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하여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혁명적 리상’을 품고 실천하는 인물들이다. 이전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기 개인의 성실성과 열정을 지녔다면, 대약진운동기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이끌어가는 힘은 당으로부터 나오며, 구체적으로 ‘모주석 어록’에서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이는 특징이다. 개인숭배의 조짐이 강화되어 가던 반우파투쟁기의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백의 아들>(1959, 박영일과 공제)<sup>19)</sup>은 중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하여 창작되었다. 1959년 10월부터 70여 차례 공연되었으며, 문화대혁명 기간을 제외하고 도합 384차에 걸쳐 공연되어 연변 조선족 연극의 걸작으로 꼽히고 있다.<sup>20)</sup>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있던 1936년을 극중 배경

18) 중국조선족역사학적 편찬위원회, 『풍랑』, 북경 : 민족출판사, 1993, 5면.

19) 중국 연변의 희곡은 공저자가 표기된 경우가 많으며, 협동 창작을 근본으로 하는 창작 특성상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론 창작 주체는 앞에 표기되는 인물이다.

20) 김운일, 『연극사』, 『예술사』, 북경 : 민족출판사, 1994, 604면.

으로 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한 박철의 영웅적 투쟁담이 중심 이야기를 이끈다. 일본군의 추격에 쫓겨 도망가던 박철이 정봉녀의 어머니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는 극의 서두에서부터, 아버지의 애타는 전향 권고를 뿌리치고 총살 당하는 마지막 장면까지 이야기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므로 극적 재미의 측면에서는 황봉룡 최고의 작품이라 해도 무방 하겠다. 박철은 황봉룡의 이전 작품에서 나타나던 개인의 성실성은 물론이고, 그것에 덧붙태어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혁명적 이상'을 지닌 인물로 부각되어 있다.

**박 철** : 우리는 백색공포가 심한 정황하에서 양사령의 지도밑에 밤에는 선전빠라를 찍고 노동자들속에서 파업을 조직하면서 혁명공작을 견지하였소. 우리 혁명가의 앞에는 곤난이란 두 글자가 없는거요. 다른 모든 사람이 이겨낼수 없는것도 우리는 이겨낼수 있으며 다른 모든 사람이 할수 없는 것도 우리는 할수 있소.21)

**박 철** : 우리 공산당원은 인민을 위해 죽는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 하오. 오래지 않아 중국인민은 당신들을 력사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처단할것ियो. 당신들은 아무리 발악한다 해도 실패의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며 중국혁명은 의연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한길에서 즐기차게 전진할것ियो.(319면)

박철이 여인의 애정 공세, 부유한 삶을 약속하는 회유, 목숨을 담보로 하는 협박 등등의 온갖 난관을 물리칠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대한 중국공산당의 령도”(234면)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황봉룡은 ‘혁명적 이상’은 당이 이끄는 노선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데에서 얻어지며, 그 길을 따를 때 개인의 안일에 함몰되지 않으며, 역사의 발전을 믿고 따르는 신념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

21) <장백의 아들>, 《황봉룡 희곡집》, 262면.

였다. 박철의 인물 형상은 황봉룡의 전체 작품중에서도 으뜸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이지만, ‘혁명적 리상’을 강조하다보니 개인의 내면이 거세 된 인물로 그려진 점은 문제로 보인다.

<새벽길>(1961)에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훈이 주동인물이다. 동훈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인물로써 ‘혁명적 리상’을 지닌 조직성이 있는 인간형으로 그려진다. 그는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농촌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상의 힘으로 이겨내려는 신실한 청년이다.

동 철 : 그럼 내 요구가 너무 높은가? 사실 높은것두 아닌데... 형님 우리가 실천에서 배운걸 리론에까지 끌어올리자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모여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서적을 뒤지며 자료를 찾고 토론하고 계획을 세우는 등 이런 문화적인 환경이 필요하단 말이요.

동 훈 : 모두어말하면 그럴듯한 집과 구전한 설비가 있어야 한단말이지?

동 철 : 그렇다구 당금 벽돌집을 짓자는건 아니오.

동 훈 : 동철아, 내 말은 우선 호미자루를 쥐고 풀속에 꼴을 박을 사상적준비가 있어야 한단 말이다.(437면)

그에 비해 동생인 동철은 공청단원이면서도 농촌에 진정 발붙이기 보다는 농업 개량에 기여한 인물로써 이름을 얻기 위하여 농촌에 들어왔다. 동훈의 표현에 따르자면 ‘사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인물인 셈인데, 이들이 대비되면서 동훈이 지닌 정신이 긍정되는 것이다. 동철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가새꼴로 들어감으로써 ‘사상도 붉어지고 실무에도 정통하자면 당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451면)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

<예조리령감>(1962)도 조직성이 있는 인간형을 긍정하는 황봉룡의 입장이 살아 있는 작품이다. 조영감과 장영감, 즉 동감이며 사돈이 된 두 영감을 대비시켜 ‘집체’를 우선하는 생활을 강조하고 있으나, 장영감을

제외한 등장인물의 대부분이 조영감을 지지하는 설정이어서 ‘혁명적 리상’을 지닌 인물의 중요성이 아주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예조리 영감이라 불리는 조영감은 폐병 걸린 소를 전심전력으로 키워 일등상을 받으며, 사돈에게도 집체 수레는 빌려주지 않을 정도로 “대공무사하고” “집체에 먼저 관심”을 두는 인물이다. 그 반면에 장영감은 국가의 수매 임무를 전혀 완성하지 않은 쉬떡바치네를 부러워 하면서 “밭탈이 낫네 하구 사흘째나 쉬면서 황무지를 일구느라고 기를”<sup>22)</sup> 쓰고 다닌다. 장영감의 그러한 행동은 집체호로 가는 당국의 정책을 어기고 개체호를 선호하는 당대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거부되어야 할 대상이다.

**장만춘** : 아버지, 오늘 우리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다같이 부유해지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 혼자서만 잘살겠다고 집체일은 별로 하지 않고 나무를 보호하라는 산비탈에다 나무를 찍어내고 밭을 일궜단 말입니다. 그건 당의 정책에 어긋나는 일이고 결국에는 나라와 집체에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385면)

집체에 손해를 끼치는 아버지의 행동을 누구보다도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의 아들이다. 혈연의 정보다 국가적 이익의 실현을 우선시하는 그의 바탕에는 ‘당의 령도’에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결국 장만춘이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고 반성함으로써 ‘혁명적 리상’을 지닌 삶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광활한 천지에서>(1965, 하명안과 공저)는 1959년 가을부터 1963년 가을까지 연변 어느 산구 인민공사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다. 낙후되어 있는 농촌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수확량증대가 필수적임을 깨닫고 품종개량 사업에 온 몸을 바쳐 일하는 두 청년의 삶이 그려진다. 김광호와 최병철은 “모주석의 위대한 호소를 받들고 광활한 천지에서 우리의

22) <예조리 영감>, 《황봉룡 희곡집》, 361면.

청춘과 희망을 사회주의 새 농촌 건설에 깡그리 바치<sup>23)</sup>려는 고충 동창이다. 그들은 새로운 품종의 벼씨를 얻기 위해 함께 노력하지만, 김광호가 집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최병철은 새로운 벼씨를 개발한 공을 얻고자하는 ‘주관주의’에 함몰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들의 갈등은 거기에서 비롯된다.

**심서기** : 곡식은 자주 김을 매야 잘자라고 청년은 수시로 개인주의를 극복해야만 모든 일에서 성사할수 있는거다. 그렇지 않다면 나중에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거다. 과학실험은 당의 사업이란걸 잊지 말아야 한다. 병철아, 모판에 부패병을 다스리기전에 먼저 네 머리속에 생긴 부패병을 잘 치료해야 한다. (252면)

최병철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김광호와 더불어 총력을 기울여 마침내 생산량이 높은 품종을 개발해낸다. 김광호는 최병철이 개인주의, 주관주의에 빠져 있음을 비판하면서도 그를 따뜻하게 포용할 줄 아는 품성을 지니고 있으며,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하여 200여리 길을 걸어오는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그 정신의 근원이 ‘모주석’에게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가 지닌 ‘혁명적 리상’은 사상과 기술의 통일을 강조한 당의 지침에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어서, 당의 지도 원리에 따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구실을 한다.

대약진운동기의 황봉룡의 작품에는 ‘혁명적 리상’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인간형이 강조되고 있다. 그들은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당의 지도’에 추호도 의심치 않는 것이다. 새로운 국가건설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인물들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사회주의국가 건설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업적 견해’에서 차이가 나는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 작품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새로운 국가

23) <광활한 천지에서>, 《장백의 아들》, 175면.

건설기를 거쳐온 다음 사회주의국가 건설에 매진하기 위하여 당의 지도력이 강조되기 시작했던 분위기가 그의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시도는 <광활한 천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덕삼** : (붉은 천으로 정히 짠 벼종자이삭을 주며) 광호, 북경에 가면 이 종자를 모주석게 올려라. 장백산아래 우리 조선족인민들은 모주석과 공산당의 덕분으로 백옥같은 이밥을 먹으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고 꼭 전하여라.(267면)

반우파투쟁의 폐해가 작품에 미친 악영향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광호와 최병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갈등이 해소되어 극적 상황이 종결된 지점에 보여지는 이러한 장면은 사족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장백의 아들》에 실린, <장백의 아들>에서 박철이 사형당할 때 “새 중국은 공산주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것”이며 “모주석 만세”(171면)를 외치며 죽어 가는 설정도 극적 통일성을 깨고 있다.<sup>24)</sup> 이러한 문제는 시대의 요구에 작가가 눌리면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다. 연변지역의 대표적 작가인 김학철과 최정연을 위시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당을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반대한다는 죄명을 쓰고 우파분자로 몰려야 했던 상황 속에서 작품을 써야했던 상황이 남긴 필연적 아픔이다.

24) 《황봉룡 희곡집》에 실린 작품은 1959년 10월 작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장백의 아들》에 실린 작품은 1962년 5월, 1978년 4월에 고쳐서 1978년 7월에 최종 완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대사가 수정된 정도 외에 전체 내용은 차이가 없지만 《황봉룡 희곡집》에 비해 《장백의 아들》에 실린 작품이 ‘모주석’을 월등히 강조하고 있어서 반우파투쟁과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느낄 수 있다.

#### 4. 문화대혁명기와 ‘영웅적 투쟁’의 인물

연변지역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을 휩쓸던 반우파투쟁은 ‘문화대혁명’으로 확대되었다. 10여년간 중국 전역을 공포의 시대로 이끌었던 문화대혁명은 대략 1억명 이상의 중국인이 연루된 엄청난 사건이었다. 중국 정부내의 실권 다툼, 그리고 소련과 중국 사이에 생겨난 불화 등이 배경이 된 문화대혁명은 연변지역 연극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게 된다. 특히 강청의 주도로 이루어진 ‘본보기극’은 극작품을 지녀야 할 독창성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해버렸다.<sup>25)</sup> 반드시 계급투쟁을 극화해야 하며, 작품에 등장하는 완벽한 성질의 영웅적 인물은 모택동과 당에 무한한 충성을 보여야 한다는 식의 지도 노선이 연변지역에까지 적용<sup>26)</sup>되면서 엄청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황봉룡의 작품집에는 문화대혁명 당시에 발표한 작품은 실려 있지 않다.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황봉룡 역시 <장백의 아들>이란 ‘대독초’를 발표했다 하여 농촌에 쫓겨 내려가 개조를 당한 경험이 있다.<sup>27)</sup> 짐작컨데 ‘장백’이란 말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상황에서 발표한 작품이라면 극좌성향의 본보기극류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sup>28)</sup> 1976년 모택동의 사망으로 4인방이 몰락하자마자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비판하는 작품을 발표하지만, 화국붕이 집권하고 있는 당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작가 자신은 문화대혁명의 그늘 속에

25) 맥커라스, 콜린(김장환 외 역), 『중국희곡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209-210면 참조.

26) 연준문, 「혁명적본보기극을 창작의 시범으로」, 『천지』, 총제16기, 1975.6, 45-47면 참조.

27) 황봉룡, 「지나간 옛말로 되었다」, 『문학과 예술』 제95호, 1996.5·6, 연변문학예술연구소, 17-19면 참조.

28) 《황봉룡 희곡집》의 서문에서 “극좌사조의 흔적이 있는 작품들을 빼”버렸다고 밝히고 있다.

여전히 간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차길>과 <칭산은 여전히 푸르다>처럼 문화대혁명 당시의 상황을 비판하면서 미래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작품에서는 ‘영웅적 투쟁’의 인물이 주류를 이룬다. 문화대혁명의 잘못된 분위기 속에서도 곳곳하게 올바른 길을 고집하는 ‘영웅적 투쟁’의 인물들이 문화대혁명 이후의 중국에 필요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차길>(1976, 김창길과 공저)은 1973년에 초고를 쓰고, 1974년에 이고(二稿), 1977년에 완성되었는데, 여기서 다루는 작품 중에서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창작된 유일한 작품이다. 문화대혁명의 열기가 주춤해지던 1973년을 배경으로 하는 <차길>에는 개인의 이득을 우선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다. 무쇠청년돌격대 대장이자 당원인 조금단에 게 있어서 제일 큰 고민은 매사에서 당의 방침대로 되지 않은 면면들이 많아진 것이다. 문화대혁명의 혼란을 틈타 개인의 돈벌이에만 몰두해서, “밭의 풀은 범이 새끼를 칠 지경이”되어도 “해마다 득전을 타고 기와집에다 4대기물까지”<sup>29)</sup> 마련한 인물들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작품의 주동 인물인 조금단은 개인주의에 물든 차상후를 비롯한 인물들과 힘든 싸움을 벌이고, 마침내 그들을 굴복시킨다.

**조금단** : 출비대회전기간에 무엇 때문에 부업을 조직하고 어떤 방법으로 당전생산에 영향 주지 않고 임무를 완성할 수 있는가? 또 부업수입을 처리할 때 국가, 집체, 개인이 삼자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결이 있어야 할거예요.(69면)

차상후를 굴복시킨 조금단을 통해 직접 전해지는 주장이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셈이다. 더구나 조금단은 영민 할뿐더러, 분명한 원칙을 세워 집행하는 판단력도 분명하고, 소녀 장수라 불릴 정도로 힘이 세면서

29) <차길>, 《장백의 아들》, 68면.

동정심까지 있기에 완벽한 인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뛰어나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금단의 형상은 본보기극류에서 요구하는 주동 인물의 흔적으로 보인다.

<청산은 여전히 푸르다>(1977, 박웅조와 공저)에 이르면 문화대혁명의 잔재청산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시기적으로 문화대혁명이 끝난 직후에 발표된 작품이어서인지 작품의 서두에 “무산계급은 자산계급과 치열한 대박투를 진행하여 왕홍문-장춘교-강청-요문원 반당집단을 분쇄”했으며 “모주석께서 가리키시는 항선을”<sup>30)</sup> 따라나가는 작품의 의도를 드러내어 밝히고 있다. 그야말로 당대적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라 해야하겠는데, 당대 정치 상황을 의식하는 작가의 입장이 작품을 지배하면서 극 전체는 예전의 탄력성을 잃어버린 채 기계적인 극작술로 떨어져 버렸다.

구성관과 변세일은 ‘문화대혁명 때 맹장’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생산에서 백년대계를 하는 것보다 정치상에서 만년 붙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280면)는 사상정풍의 논리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방해되는 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문화대혁명 당시 무수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희생시켰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에게 상대되는 인물이 작품의 주동인물 박창수이다. 박창수는 청산공사당위 서기이며 도끼봉수리공사에 전심전력하고 있으면서, 상급에서 파견한 조사조 조장인 구성관에게 대항해서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 “문화대혁명때 비판한 것들이 되살아났다”(288면)며 정치적 공세를 가해오는 구성관과 변세일의 행위에 대해 그는 “화국봉동지의 총결보고 정신”(286면)을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입장에서 끝까지 밀고 나간다. 박창수의 이러한 행동은 문화대혁명이 정치이론만 성하고 실천이

30) <청산은 여전히 푸르다>, 《장백의 아들》, 270면.

결여되어 엄청난 혼란을 불러왔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박창수** : 서동무, 우리가 몰려서고 공사당위 령도권과 공지의 지휘권을  
 변세일이나 유성범 같은 사람에게 넘겨줄수 있단 말이요! 이건 혁  
 명의 수요가 아니라 사악한 역풍이요, 계급투쟁이요! (313면)

모략으로 인하여 추방 당할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박창수는 흔들림  
 없는 태도는 싸움에 임하여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되고, 마침내 구  
 성관을 비롯한 인물들을 굴복시키게 된다. 황봉룡의 작품 중에서 보기  
 드물게 부정적 인물들이 최후의 순간까지 저항을 시도하며, 자기 반성  
 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 역시 문화대혁명을 주도했던 세력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태도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공격하려는 작가의 입장이 강하다 보니 인물 형  
 상화에 있어서 정도의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 결과 ‘영  
 용적 투쟁’의 인물인 박창수는 상당히 비현실적 인물이 되고 말았다. 자  
 신을 둘러싸고 벌여졌던 일련의 사건이 “공사당위 령도권이 누구 손에  
 장악되는가 즉 두개 계급, 두갈래 길, 두갈래 로선간의 치렬한 계급투  
 쟁”(347면)으로 파악하는 박창수의 예지력은 설득력이 약하다. ‘지도부  
 사상정풍’을 이용하려했던 구조장과 손세일의 음모가 시종 개인적 욕심  
 으로 일관되어 있어서, 최고 권력층과 연계되어 있었던 문화대혁명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극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러한 비현실  
 성을 극대화되어 있다.

**박창수** : 동무들, 특대희소식을 알려겠습니다! 이번에 화국봉동지를 위수  
 로 한 당중앙에서는 당과 국가의 령도권을 찬탈하려고 시도한 왕  
 흥문, 장춘교, 강칭, 요문원 《4인방》 반당집단을 일거에 분쇄하였  
 습니다.

**일 동 :**야 정말 우환을 없애버렸구나. 《4인방》을 타도하자!

**박창수 :** 화국봉동지께서 중공중앙 주석과 중앙군위 주석을 담임하시었 습니다!

[격양된 음악과 함께 군중들의 합성이 터진다. 군중들은 환희로 들 끓는 심정으로 달려가 박창수를 하늘공중에 런속 들었다 놓는 다.(369면)

박창수의 모습은, 문화대혁명이 종결되긴 하였지만 혼란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했던 화국봉 체제가 요구하는 방안이 극속에 바로 이입된 느낌이 강하다. 박창수의 개인적 품성에 대한 세밀한 배려 없이 화국봉 동지의 지시에 따른다는 원칙만 강조되고 있어서, 본보기극의 유형화된 주동인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화대혁명기에 발표된 희곡에는 ‘영웅적 투쟁’의 인물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부정적 인물들과 맞서 과감하게 싸워나간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고발하려는 작가의 의지가 앞서기 때문에 인물 형상화에 있어서 현실감이 결여된 설정들이 많아졌으며, 인물들의 형상 역시 유형화 되어버린 느낌이 든다. 문화대혁명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그 폐해는 계속되는 것이다.

## 5. 새로운 역사시기와 ‘퇴봉 정신’의 인물

1978년 말에 덩소평 정권이 들어서면서 ‘잃어버린 10년’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간다. 통제경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시장 경제의 요소들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개방화 정책으로 이어졌으며,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급격한 흐름을 타기 시작한 중국의 개방화 물결은 연변지역에 까지 흘러들었다. 농민들이 부업 생산물을 자유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 소득은 조금씩 향상되었다.<sup>31)</sup> 하지만 중국의 새로운 변화는 여러 면에서 혼란을 불러왔고, 변화의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미래가 결정되었다. 그러한 혼란은 연변지역 문예활동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990년대 중반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다음의 진술이 의미심장하다.

시장경제의 충격속에서 적잖은 작가예술가들이 어림없이 생기고 상실감이 생기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다. (중략) 시장경제의 충격속에서 적잖은 작가예술가들이 고기를 잡으려 바다에 뛰어들거나 붓을 꺾어버리고 다른 사업에 열중하는것도 이해할만하다. (중략) 시장경제의 충격속에서 민중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천하를 호령하던 계몽자들이 위축되었거나 사라진 것은 이해할만하다. (중략) 그러나 우리의 작가예술가들은 원래 한 리상과 숭고한 사명감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sup>32)</sup>

황봉룡의 작품에도 변화하는 상황을 혼란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이 드러난다. 작품의 주 경향이 희극으로 바뀐 것도 그렇지만, 작품의 주동 인물들이 예전과 달리 뚜렷한 성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그러한 사실을 예증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지탱해나갈 인간형을 생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국가건설기'의 낙관적 인물을 다시 강조하는 듯한데 그들을 '퇴봉정신'을 소유한 인물이라 해야하겠다. 보수적 입장으로 보이기도 하는 황봉룡의 태도는 반우파투쟁과 문화대혁명을 거쳐온 경험에 압도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짐작되며, 변화속에서 나름대로 자신의 중심을 지탱해보려는 노력으로 여겨진다.

공연금지 작품으로 묶였던 <장백의 아들>이 풀리면서 정치적 속박으

31) 페어뱅크, 존 킹, 앞의 책, 518-519면 참조.

32) 최삼룡, 「민족영혼의 재구조-신성한 사명」, 『문학과 예술』 제95호, 1996. 5·6, 연변문학예술연구소, 4면.

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황봉룡의 첫 작품이 <괴상한 락력표> (1979) 이다. 1975년 가을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른바 ‘4인방’이 몰락하기 직전을 상황을 극중배경으로 황봉룡이 선택한 것에서도 문화대혁명의 실패에 대한 교훈을 찾으려는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극중에서도 언급되지만 고골리의 <검찰관>이 제시한 ‘오해’와 ‘응징’의 구조를 당대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 활용한 작품이다. 황봉룡이 <괴상한 락력표>에서 문제 삼는 것은 사회주의 이상에 맞지 않게 특권화 되어 가는 권력층의 횡포에 있다. 중국의 지식청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시골에서, 혹은 공장에서 노동자·농민과 더불어 일하는 것이 상례이지만, ‘비둘기 패’인가, 혹은 ‘영구패’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비꼬고 있다. 비둘기 패는 특권을 이용하여 농촌생활을 금방 청산하는 사람들이고, 영구패는 “특권을 가진 부모가 없”<sup>33)</sup>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괴상한 락력표>의 주동인물인 고진성은 잘못된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의 하나로 자신의 삼촌이 당원이며, 성위부서기 직에 있는 고관이 라는 거짓 락력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그것을 본 방태약을 비롯하여 “령도자한테는 잘 보여야” “떡을 알이 있다”(4면)고 여기는 집단들이 온갖 호의를 베풀며 접근을 한다. 거기에 “녀자의 행복은 애인을 잘 만나는데 있다”(4면)고 여기는 강영자까지 가세하면서 온갖 희극적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그동안 고진성은 “정치는 올라가는데 생산은 내려가고 소문은 굉장한데 떡을 알은 없”(35면)다는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불한당’이라 불리면서 갖은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상황이 바뀐 것이다.

그때 성위부서기인 고관석이 현장 지도 방문차 내려옴으로써 한 바탕의 소동이 일게 된다. 고관성은 “네분 수장”(25면)을 하늘처럼 받들면서

33) <괴상한 락력표>, 《황봉룡 희곡집》, 53면.

중양으로 진출할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 역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많은 허물이 있기에 개혁을 요구하는 고진성의 요구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듯하지만, 그 역시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는다. 고진성의 힘으로는 방태약을 비롯한 일군의 무리들은 권력에 아부하여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려는 집단을 상대하기에 역부족이다. 참다운 사랑을 찾는 정미화, “바른소리를 하지 않으면 속이 뉘번”지는 서씨, 남편이 억울한 죄명을 쓰고 잡혀 간 안순자 등이 고진성을 도우려 하지만 힘이 미치지 못한다.

**고진성** : (채봉선을 향해) 아주머니, 당의 정책과 국가의 법률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째서 나쁜짓을 한 사람은 법의를 입고 심판석에 앉아 있습니까? 어째서 무고한 사람은 억울한 죄명을 쓰고 피고석에서 그들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진 고진성을 구해주는 힘은 당에서 나온다. 규률검사위원회의 조사조가 고진성의 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저녁에 내려온다는 전갈을 들은 고관석은 자신이 살기 위하여 방태약을 위시한 부정적 인물들을 내팽개쳐 자중지란이 일어나면서 몰락하고 만다. 이러한 설정은 문화대혁명 당시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리는 것이며, 당이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한다. “4인무리가 살판 치던 시기에 나타난 기형적인 생활의 한 측면을 폭로”(85면)한 것이며, 결국 “당의 규률과 국가의 법률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특수한 대우를 주지 않을 것”(85면)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된다.

<괴상한 략력표>의 고진성은 영웅적 투쟁의 인물이긴 하지만, 다른 작품에 흔히 보이는 고상한 품성의 인물은 아니다. 잘못된 현실을 고쳐

보려는 의도가 있다고는 하나,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흥정하는 등 행동의 가치면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소영웅주의자’이다. <검찰관>을 변용하여 4인방을 풍자해보려는 의도에서 주인공을 설정하면서 생겨난 한계로 여겨진다. ‘당의 현명한 판단’이 개입되어 갈등이 해결되어버리기 때문에 고진성이 풍자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에게 부정적 행위를 보상할 기회가 작품내에서 주어지지 않아서 생겨난 현상이다.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상황 속에서 흘러간 시대의 인물을 희극적으로 비판하려는 시도가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산귀신>(1982)은 황봉룡의 조심스런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우선,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장백의 아들>과 동일한 인물형에 관심을 보인다는 면, 또 1933년에서 1935년까지 연변에서 활동한 항일 유격대원 김덕삼을 주인공로 하는 이 작품이 극의 구조와 인물의 성격면에서 <장백의 아들>과 거의 같다는 점에서 그렇게 느껴진다. 자신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을 <장백의 아들>로 회귀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불안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며, 반우파 투쟁과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를 거친 경험에서 안전한 창작의 길을 선택한 것이기도 하다.

김덕삼과 항일 유격대원인 신련화, 김덕삼을 도와주는 오정숙, 세 사람을 축으로 해서 조국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져간 항일 유격대원들의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다. 김덕삼은 유격대에 적응을 잘 못하지만, 신련화의 도움으로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자각적인 전사로 육성”<sup>34)</sup> 된다. 경찰서에 위장 취업했을 때 항일 유격대를 배신한 인물 민응수 때문에 체포되어 사형 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용감한 동지들의 활약으로 목숨을 구하고, 다시 혁명의 길로 떠난다.

다소 맹목적인 인물로 보이기도 하는 김덕삼은 철저하게 당의 도움으로 개조되어 혁명의 대열에 가담하는 인물로 되어 있다. 오직 아버지를

34) <산귀신>, 《황봉룡 희곡집》, 189면.

죽인 지주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 뿐인 김덕삼에게 “더 큰 원수는 지주나 경찰이 아니라 왜놈들”(159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인물이 신련화이다. 신련화가 당을 대리하는 인물인 셈이다. 김덕삼은 열정만 있을 뿐 사리판단이 미숙하여 동지들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신련화를 비롯한 동지들의 헌신적 도움으로 튼튼한 인물로 거듭난다. 김덕삼은 ‘혁명적 리상’을 지닌 인물이지만, 각성과 실천의 단계가 소략하게 처리되어 현실감이 아주 떨어진다. 오히려 김영춘과 강털보 등의 주변부 인물들이 훨씬 생동감 있게 처리되어 있다.

**김영춘** : (비통한 어조로) 동지들, 용맹하고 슬기로운 한족전사 강동무는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죽어도 그의 령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산자의 새봄을 안아오기 위해 붉은 피를 휘뿌리며 인생분묘에 개선하였습니다. 그가 걸어온 전투적로정은 아침해처럼 생기로 차넘치고 그의 죽음은 태산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다. 총창을 비껴들고 복수의 탄알을 재읍시다.(188면)

등소평 정권 이후의 변화를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황봉룡의 생각이 직접 드러난 것이다. 한족(漢族) 유격대원인 강털보의 영웅적 죽음을 통해 동시대에 이르기까지 한족과 조선족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장백의 아들>에서 당했던 ‘민족 문화혈통론’으로 인한 비판을 피해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항일유격대가 시형장을 습격하여 김덕삼을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려 놓았지만 작품을 통해 구체적인 방향은 암시하지 못하고 있다. 김덕삼의 인물 형상의 수준이 황봉룡의 작품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것과, 극적 구조가 긴장감을 유발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에 이른 것이 모두 현실감이 결여된 소재 선택에서 온 결함이라 하겠다.

<배우와 강도>(1983)는 황봉룡의 장기인 극적 반전과 오해 수법을 잘

활용한 희극이다. 그의 장기라 해야 할 정치적 성향이 아주 약화되어 있지만, 개방을 향해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일어남직한 이야기를 희극화 하여 교훈을 전달하려는 의도는 여전하다. 개방후의 사회 상황을 포착해보려는 나름대로의 시도는 보이지만 작품에서 보여주고 있는 현상은 연변지역의 변화의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 황봉룡은 연변지역의 변화를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강도와 살인을 일삼는 꺾다리의 존재가 그 생각을 대변한다.

연변 텔레비전극 배우인 차명호는 대단히 건실한 인물이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들렀던 식당에서 만난 인물들이 도적임을 알고 추적에 나선다. 지나는 행인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외면하고 만다. 연변지역의 인심이 그렇게 변한 것이다.

**행인처** : 지금 어느때요? 잃어버리면 그뿐이지 괜히 잘못 나섰다가 큰 봉변을 당하지 못해서 그러우? 제격하면 칼놀음인데...

**행 인** : 그래두 사람의 량심이 어디 그렇소?

**행인처** : 그놈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어느 뒤골목에서 딱 하고 뒤골을 치면 죽었지 별수 있소? 어떤놈들은 보복하기 위해서 밤중에 집에서 작탄을 던진단데 어찌 굉 소리와 같이 집두 사람두 다 날려보내자구 그러오? (중략) 그렇다구 이제 당신이 영웅이 되겠소? 맞아서 병신이 되거나 죽으면 그게 다 외상이지. (109면)

이러한 설정은 중국이 장려하는 ‘뢰봉정신’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뢰봉(雷峰)은 중국 건국 직후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봉사로 일관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인물이다. 그의 사후에 뢰봉의 행적을 뒤따르지는 운동이 일게 되면서 ‘뢰봉정신’은 중국 청년들이 지녀야 할 대표적 사상이 되었다. 황봉룡은 차명호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도적을 쫓아가는 정신이야말로 혼탁해져 가는 연변지역 정서를 지켜

낼 수 있는 인물로 보는 셈이다.

새로운 역사시기는 그 이전의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나서는 때이다. 황봉룡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변화하는 상황에 앞서나가기 보다는 '새로운 국가건설기'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변화를 바라보고 있다. '퇴봉정신'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태도는 사회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작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퇴봉정신'이 개방화의 물결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구체적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괴상한 락력표>의 주인공 고진성이나, <배우와 강도>의 차명호는 개인적인 정열만으로 자신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서 다분히 '소영웅주의적 인물'로 보이기도 한다. 개방으로 향해 가는 혼란 속에서 원칙을 강조하려는 노작가의 의지가 등장인물을 생동감이 부족한 고정적 인물(stock character)에 한정되게 했고, 현실감이 결여된 사건 전개로 인하여 극작품의 전반적 수준이 초창기 작품에 비해 오히려 뒤떨어지는 면도 지니게 되었다.

## 6. 결론

황봉룡의 작품세계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연변지역 극작가로서 자신의 책무에 충신했던 결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작품이 규격화되어 버리는 문제도 안게 되었다.

1949년에 중국에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된 직후 이른바 새로운 국가창조기에는 과거의 중국보다 더 나은 사회를 믿어 의심치 않는 낙관적 인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새각시>의 며느리 선순, <네 번째 해방>의 지순녀, <물남에서 온령감>의 김초시, <김원장 일가>의 김원장이 그러한 인물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성실하고, 인정이 많은 인물들이어서

상대방의 결함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행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는 고귀한 품성의 소유자들이다. '새로운 국가창조기'에 필요한 인물을 잘 보여주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낙관적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 성향의 차이로 이해되는 한계도 있다.

대약진운동기에는 '혁명적 이상'을 품고 실천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의 힘은 당으로부터 나오며, 후반기로 갈수록 '모주석 어록'이 직접 인용되어 개인숭배의 조짐이 강화되어가는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장백의 아들>의 박철은 '혁명적 이상'을 체현하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은 당의 영도를 믿고 따르면서 얻어지는 것임을 관객들에게 알게 한다. <새벽길>의 동훈, <예조리 영감>의 조영감, <광활한 천지에서>의 김광호 등은 개인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혁명적 이상'을 실천하는 인물들이며, 반대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반성을 촉구하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주동인물의 중심에 당의 역할이 자리하고 있어서 인물의 유형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활한 천지에서>는 반우파투쟁의 흔적이 강하게 드러난 문제가 있다.

문화대혁명기의 작품에는 본보기극의 폐해가 드러나 보인다. <차길>의 조금단과 <청산은 여전히 푸르다>의 박창수처럼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해나가고, 상대방의 개선을 요구하는 '영웅적 투쟁'의 인물이 등장한다. 문화대혁명의 모순을 고발하려는 작가의 의지가 앞서있기 때문에 박창수처럼 역사적 진실성을 얻기 어려운 인물이 나타나기도 한다. 본보기극의 관습을 작가가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1978년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중국은 서서히 개혁과 개방의 흐름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이른바 새로운 역사시기의 작품에는 '퇴봉정신'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시기처럼 뚜렷한 지향점을 지

니지는 못하고 있는데, 반우파투쟁과 문화대혁명을 겪은 아픔이 황봉룡에게 신중하도록 가르친 때문으로 보인다. <괴상한 략력표>의 고진성은 그 이전에 볼 수 없는 결함 있는 주동인물이며, <산귀신>의 김덕삼도 좌충우돌 끝에 항일 유격대원으로 탄생하며, <배우와 강도>의 차명호는 도둑을 개인 힘으로 체포하려고 나선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역사시기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분히 소영웅주의적 요소로 보여지며, 새로운 국가건설기의 인물들과 많이 닮았다. 이들로써는 개방화 시대의 연변지역을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며,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기에도 역부족이라 하겠다.

등장인물을 중심에 두고 황봉룡의 작품세계를 살펴보면, 해당 시기가 요구하는 인물형을 창출하고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정신을 관객에게 전달하려고 애써왔음을 알 수 있다. 반우파투쟁과 문화대혁명은 그에게 본보기극류의 연극을 강요하였고, 결국 그 폐해에 함몰되어 버림으로써 후반기에 가까워질수록 등장인물의 생동감이 떨어지고, 유형화의 경향이 강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랑의 시대를 통과하면서 그가 행해 온 연극적 대응의 가치가 완전히 폄하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새로운 국가건설기의 작품들이 보여준 인물의 생생함이나 짜임새 있는 극구조는 황봉룡의 작가적 위치를 높이 평가하는데 손색이 없다. 황봉룡 희곡의 또 다른 특징으로 지적되는 극구조에 대해서는 자리를 달리 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1. 자료

황봉룡, 《장백의 아들》, 연길, 연변인민출판사, 1978.

황봉룡, 《황봉룡 희곡집》, 연길, 민족출판사, 1984.

### 2. 논저

김운일, 「연극사」, 『예술사』, 북경 : 민족출판사, 1994.

김재석, 「연변 조선족 극문학의 극적 특성과 공연기법 연구」, 『어문학』 제64집, 한국어문학회, 1998.

김해룡, 「중국조선민족극예술 개관」, 『중국조선민족예술론』, 료녕민족출판사, 1991.

김홍우, 「중국 연변 조선족의 문학」, 『희곡문학』, 창간호, 1990.

맥커라스, 콜린(김장환 외 역), 『중국희곡사』, 서울학고방, 1995.

서연호, 「연변지역 희곡연구의 예비적 검토」, 『한국학 연구』 제3집,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1.

연준문, 「혁명적본보기극을 창작의 시범으로」, 『천지』, 총제16기, 1975.6.

페어뱅크, 존 킹(중국사 연구회 역), 『신중국사』, 도서출판 까치, 1994.

황봉룡, 「지나간 옛말로 되었다」, 『문학과 예술』 제95호, 1996.5·6, 연변문학예술연구소.

Abstract

## The Dramatic Response to Difficult days

-On Hwang bong-ryong

Kim, Jae-Suk

When we consider the works of Hwang bong-ryong chronologically, we see that he coped with the changes of chinese politics and society sensitively.

In 1949 there was what they called 'the new epoch of national foundation', after the establishment of socialism government in china. In this time, the major characters in his works were the optimistic people who believed that the new china would be better than the past china; Seonsun in *Saekaksi*(새각시), Jisoonnye in *Nebeonjae Haebang*(네 번째 해방), Kimchosi in *Mulhameseo on ryenggam*(물남서 온 령감) and Kim wonjang in *Kimwonjang ilga*(김원장 일가). They were all so sincere and generous that they would not criticize others' faults but waited for others to perceive of their faults themselves. They were all suitable persons for 'the new epoch of national foundation' but they had the limitation of personal disposition's difference, since how they came to have such optimistic belief was not shown evidently in his works.

In the time of 'great developpe campaign', the people who carried out their 'revolutionary ideal' appeared in his works. Their power came from the CCP and in the latter half of that time, 'the book of Mao' was directly

quoted in his works, which showed the atmosphere of growing individual worship. Pakcheol in *Jangbaekui adl*(장백의 아들) was the representative character who had 'the revolutionary ideal'. He made the audience realize that his belief was not broken down in front of death and it was achieved by believing and following the CCP's leadership. Donghun in *Saebyeokgil*(새벽길), Jo ryeng gam in *yejori ryenggam*(예조리 령감) and Kim kwangho in *Kwanghwalhan Chenjieseo*(광활한 천지에서) did not yield to individualism, but carried out the 'revolutionary ideal' for nation. They were also the people who made opposers reflect on themselves more actively. But the party played an important part in the major characters, and so the tendency of character stereotype was appeared in his works strongly. And there was another problem; the strong traces of anti-rightist campaign in *kwanghwalhan chenjieseo*(광활한 천지에서).

In the time of the Great Proletarian Cultural Revolution the bad effects of model plays were shown in his works. Jogumdan in *Chagil*(차길) and Pakchangsu in *Chungsanun yejeonhi purada*(청산은 여전히 푸르다) were the characters making the 'heroic struggle'. They practiced what they thought were right in the whirlpool of the Great Proletarian Cultural Revolution and demanded other's improvement. But the characters who had difficulty in getting the historic reality like Pakchangsu sometimes appeared in his works, since the playwright's will which tried to indicate the contradiction of the Culture Revolution were too strong and he didn't properly get out of the convention of model plays.

In 1978 when Deng Xiaoping took power, China began to accept the tendency of innovation and open door policy. In this new historic time, the characters of 'Ryobong spirit' appeared in his works, but they didn't have clear aims like characters before. It was that the pain model Hwang

bong-ryong more careful, experiencing the anti rightist's campaign and the Culture Revolution. Gojinsung in *Gyosanghan Ryakryekyo*(괴상한 락력표) was a defective character unlike the characters before, Kimduksan in *Sangyesin*(산귀신) made rebirth as an anti-Japanese guerrilla after many failures and frustrations and Chamyengho in *Baeuwa gangdo*(배우와 강도) tried to arrest the thief through the individual power. So we see that the characters in this time were a small heroism-character and they were similar to the characters in 'the new epoch of national foundation'. They couldn't describe the region of yanji well in the time of open-door and suggest the futuristic direction.

In the terms of character, Hwang bong-ryong created the character-type suitable for the each time and tried to transmit his own spirit to the audience through characters. The anti rightist's campaign and the Great Proletarian Cultural Revolution forced him to write the works like a model play. Because of their bad effects, the character's vividness became weaker and the tendency of stereotype became stronger towards the latter half of his works. In spite of these facts, the value of his dramatic response to every difficult time did not decrease completely.

Especially, the vivid characters 'in the new epoch of national foundation' and the well-constructed structure reveal the value of Hwang bong-ryong in the world of play.